

#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조한준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겸임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일반화하고 모형의 이론적·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자 389명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측정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 검토를 거쳐 잠정적으로 다섯 개 영역, 40개의 측정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89부의 설문지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능한 설문지 375부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24개의 문항에 대한 다섯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포함한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고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고 양적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모형을 객관화함으로써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협력지향성이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및 역량강화, 기회 및 성과 창출,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 강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행태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의 이론적 설명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후속 연구의 이론적 확장 근거와 토대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학술연구와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척도는 사회적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에 있어서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실무적으로도 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 측정 및 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협력지향성, 측정도구, 척도

## I. 서론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총 4,296개로 그중 3,568개가 활동 중이며 조직형태는 비영리 735개소(20.6%), 영리 2,833개소(79.4%)이다. 한국 사회적기업은 활동 중인 기업의 수 측면에서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각 기업의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적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저성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목적 활동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기업의 태생적인 문제이기도 하다(Austin et al., 2006).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체성으로

인해 투자를 포함한 자원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다(Minkoff, 2002). 태생적인 제약과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기업 운영을 지속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적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가치창출 및 기업의 성장에는 자본조달, 자원동원, 우수한 인력,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업화의 핵심에는 기업가정신이 있다.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는 구별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도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었다(Sullivan Mort et al., 2003; Mair & Marti, 2006).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향상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발현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요약 및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조한준, 2021).

\*\* 주저자, 동국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겸임교수, dynamichj@naver.com

· 투고일: 2023-05-14 · 수정일: 2023-06-07 · 게재확정일: 2023-06-07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는 발현되는 주제, 역할과 관점, 심리적·기능적 특성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행동적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으로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 구별되는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기업가적 행동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Shaw & Carter, 2007; Short et al., 2009).

사회적기업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접근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을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최조순, 2012). 하지만 전통적인 기업가정신 하위요인과 구별되는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영리기업과 구분되는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업가적 행동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목적 활동의 동기적 측면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 외에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성요인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Dwivedi & Weerawardena, 2018; Lurtz & Kreutzer, 2017; 조한준·성창수, 2023).

이상과 같이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합의가 불충분하며, 새롭게 제안되는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성 검증 및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무적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고 폭넓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협력지향성이 추가되어 새롭게 제안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모형적합성과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대되는 연구의 결과로는 연구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가 이론적·실무적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의 이론적 설명력을 향상하고 후속연구의 이론적 확장 근거와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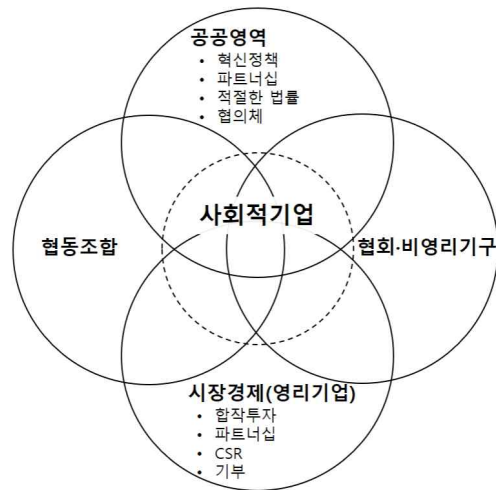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2.1. 사회적기업의 개념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의 대안적 모델로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의 역할 증대, 호혜적 자원동원에 대한 비영리조직의 경쟁 심화, 정부보조금 감소에 따른 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기업가정신의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업가적 활동의 요구 등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Kuratko, 2005; Alter, 2007).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Drayton, 2002)’, ‘공동체 이익을 위한 조직의 목적과 관련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Defourny, 2014)’,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 시장영역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Young, 2001)’,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실패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성하는 비즈니스 벤처(Alter, 2007)’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주요한 속성을 공유함에도 사회적기업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원인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정체성, 사회 경제구조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모호한 위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된 복잡한 관계적 측면, 사회적기업 고유의 특성, 지역·국가·종교·사회·경제·법률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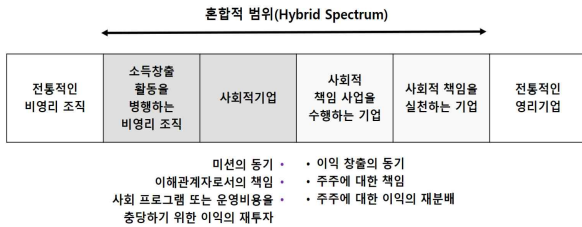
먼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된 사회적기업의 관계적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그림 1>과 같이 공공영역, 비영리경제, 시장경제(영리기업) 조직들과의 관계적 경제구조 속에서 이들의 영역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개념화하기 어려우며 복합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Defourny, 2014).



출처: Defourny, J.(2014)

<그림 1> 사회적기업과 공공·시장·비영리조직 간의 관계 구조

다음으로 조직 활동의 동기, 책임의 대상, 잉여이익의 처분을 기준으로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 사이에서 사회적기업의 위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그림 2>와 같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적 특성(hybridity)의 조직이다.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목적은 비영리조직에 가깝고, 기업운영의 수단은 영리기업에 가까운 혼합적 특성을 가지며 스펙트럼 상으로는 중간적 위치에 있다(Alter, 2007).



출처: Alter, K.(2007)

<그림 2> 경제구조 속 사회적기업의 위치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의 혼합적 특성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함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및 공적인 자금지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쟁을 만들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적 지원의 적절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과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상반된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최조순, 2012).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사회적기업 역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영리기업의 성격을 가지지만 기업의 주요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역할 제공에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상반된 관점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은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전문성과 생산성, 효율성이 낮고 영세하여 기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사회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 방향, 사회·경제적 환경, 법률제도,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사용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회적 가치창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수요 충족, 지역사회 기여라는 유사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재정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업가적 영리활동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자생력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은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이다.

## 2.2. 사회적기업가정신

### 2.2.1.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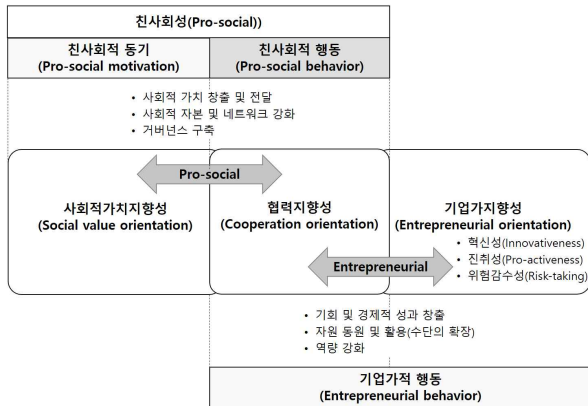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와 영리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정신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 구별되어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으로 발전하였다(Alter, 2007; Dees, 1998; Mair & Marti, 2006; Defourny, 2014).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영리·비영리 기업 및 공공 영역에서의 혁신적인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Austin et al., 2006),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

동’(Sagawa & Segal, 2000),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혁신, 진취, 위험감수,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Sullivan Mort et al., 2003), ‘사회변화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동원 및 결합, 혁신적인 해결방안, 기회 확장을 모색하는 일련의 활동’(Mair & Marti, 2006),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Cochran, 2007),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Alvord et al., 2004) 등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의에도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social)’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하고 있다(Sullivan Mort et al., 2003; Mair & Marti, 2006; Peredo & McLean, 2006; Cochran, 2007). 사회적기업가정신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범주에 해당하는 주요 특성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 긍정적인 사회변화 추구,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조직의 미션 설정 및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지향성이 있다(Peredo & McLean, 2006; Shaw & Carter, 2007). 또 다른 한 축인 기업가정신에 해당하는 주요 특성으로는 조직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목적 실현에 필요한 자원동원, 제품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방법 및 기회의 모색 등과 같은 영리기업과 유사한 조직 운영 및 성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다(Mair & Marti, 2006).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주요한 목적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가적인 방법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회적기업가 및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는 구별된다(Sullivan Mort et al., 2003).

### 2.2.2.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 구성요인

기업가정신 연구에서 조직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 경향인 기업가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 개념을 사회적기업으로 확장한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함께 사회적가치지향성을 하위요인으로 추가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최조순, 2012). 다른 접근으로 Dwivedi & Weerawardena(2018)는 조직 내·외부의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행동경향을 반영하여 실현지향성(effectual orientation)을 하위요인으로 추가하였고, Lurtz & Kreutzer(2017)는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방법으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협업(collaboration)을 새롭게 식별하였다. 또 다른 접근으로 조한준·성창수(2023)는 혼합적 특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불리함과 이중정체성으로 인한 조직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외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행동경향을 식별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협력지향성(cooperation orientation)을 추가하였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태도 및 행동경향을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ation)’,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기업가적 행동(entrepreneurial behavior)’ 특성으로 구분하고

<그림 3>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출처: 조한준·성창수(2023)  
 <그림 3> 사회적기업가정신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고찰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을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식별하였다.

**2.2.2.1. 사회적가치지향성**

먼저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가적 행동경향으로,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발휘되는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특성이다(조한준·성창수, 2023). 사회적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가치지향성은 경제적 가치창출이 주된 목적인 영리기업의 기업가정신과 구별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차별적인 특성으로 사회적 가치창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바람직한 사회변화에 기여하려는 기업가적 행태로 발현된다(Sullivan Mort et al., 2003; Mair & Marti, 2006; Peredo & McLean, 2006). 구체적으로는 지역공동체 및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 인식과 관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 모색과 참여, 사회적 미션 설정과 실천, 사회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의사결정,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위험감수, 윤리경영 실천,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목적 재투자 활동 등의 행태로 기업활동 전반에서 발현된다(Sullivan Mort et al., 2003; Weerawardena & Mort, 2006; Peredo & McLean, 2006; 조한준·성창수, 2023).

**2.2.2.2. 혁신성**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모색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행동경향으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기업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다(Austin et al., 2006). 사회적기업에서의 혁신은 조직운영 및 자원동원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나타나며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변화를 촉

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사회적기업의 혁신성은 자원동원, 제품·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제공, 공정 혁신, 새로운 기회 창출, 신시장 개척, 홍보·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현된다(Laville & Nyssens, 2001; Perrini & Vurro, 2006; Weerawardena & Mort, 2006).

**2.2.2.3. 진취성**

진취성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적 행동경향으로,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직 역량 강화,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기회 인식, 경제적 성과 향상 노력 등으로 발현되며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Austin et al., 2006; 조한준·성창수, 2023). 재정적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자원조달에 어려움을 가지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진취성이 요구된다. 사회적기업의 진취성은 시장 및 환경변화의 관찰, 미래의 수요 변화 예측, 기회 탐색, 조직의 성과분석, 정기적인 재무분석 및 재정 모델링,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 전문성 확보를 포함한 조직의 역량 강화, 시장 점유율 향상 노력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하게 발현된다(Lumpkin & Dess, 1996; Austin et al., 2006; Weerawardena & Mort, 2006).

**2.2.2.4.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식별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인지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장성 있는 사업기회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조직의 행동경향이다(Hodgetts & Kuratko, 2004; Morris et al., 2011). 사회적기업은 기대되는 사회적가치, 경제적 수익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기회를 발굴하여 인지된 위험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며 기회의 실현을 위해 행동한다(Austin et al., 2006).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이들의 위험감수는 기회에서 예상되는 성과의 잠재적 크기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특징이 있음을 강조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행태에서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은 일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Shaw & Carter, 2007; Weerawardena & Mort, 2006). 사회적기업은 수익성과 사업성,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회를 추구하면서도 기회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의 잠재력보다 기회에 내재된 위험과 조직의 관리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새로운 사업 참여와 자원투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계산된 위험감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조한준·성창수, 2023). 위험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신중한 태도는 자원동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결된 복잡한 환경, 조직의 지배구조 및 거버넌스 등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조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의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회 인식과 도전, 기업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Shaw & Carter, 2007; Lurtz & Kreutzer,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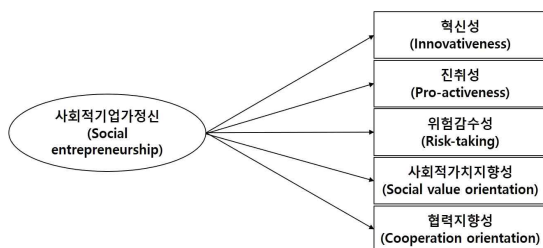
**2.2.2.5. 협력지향성**

마지막으로 협력지향성은 사회적자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 협력을 통해 가용 자원과 기회를 확장하며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성과의 확산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행동경향이다(조한준·성창수, 2023). 협력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이중정체성과 자원제약 환경 속에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행동경향으로, 사회적기업의 협력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친사회적 동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관점과, 기업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기업가적 행동’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조한준·성창수, 2023). 먼저 친사회적 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활동의 합법성을 강화하며 미션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창출의 성과를 향상시킨다(Bloom & Chatterji, 2009; Hervieux et al., 2010; Montgomery et al., 2012). 또 다른 측면으로 기업가적 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재정 및 인적자원을 포함한 내부 자원 소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 참여와 외부와의 협력에 적극적이다(Spear, 2006; Shaw & Carter, 2007; Zeyen et al., 2013). 사회적기업의 협력지향성은 친사회적 동기와 기업가적 행동의 이질적인 특성을 연결하며 사회적자본 및 네트워크 강화, 자원동원 및 역량 강화, 기회 및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거버넌스 구축 협력 등의 행태로 기업활동 전반에서 발현된다(조한준·성창수, 2023).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 협력지향성 모형의 이론적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다차원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연구의 모형

이를 위해 조한준·성창수(2023)의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행동 속성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인터뷰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과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실증하였다. 검증방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EFA)과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CFA),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SPSS 22, AMOS 24를 사용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수의 척도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되어 연구모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연구모형에 추가된 협력지향성을 측정하는 일반화된 측정도구가 알려져 있지 않아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다. 측정도구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다섯 개 하위요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문항을 도출한 후 전문가 패널 평가를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Clark & Watson, 2019; Hinkin, 1995, 1998).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3.2.1. 사회적기업가정신 개념 정의**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으로 구성된 다섯 개의 일차원(first-order dimensions) 하위개념과 이차원(second-order dimensions)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조화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하위요인에 대한 개념을 행동주의 기업가정신 이론 관점에서 정의하였다(Law et al., 1998; George & Marino, 2011; Wetzel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발현되는 기업가적 태도 및 행동경향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행동 지향성’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사회적가치지향성은 ‘조직의 사회적 미션에 부합하는 가치창출 활동에 집중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안정과 개발에 기여하려는 행동경향’, 혁신성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기회와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경향’, 진취성은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를 추구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행동경향’, 위험감수성은 ‘사업 참여와 자원투입에 앞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식별하고 인지된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성 있는 기회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행동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지향성은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 협력을 통한 가용 자원과 기회를 확장하며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성과의 확산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는 행동경향'으로 정의하였다(조한준·성장수, 2023).

### 3.2.2. 사회적기업가정신 개념의 범위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조직이 창출한 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조직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현되는 조직의 기업가적 행동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속성이나 특질, 인지와 신념, 기업가적 의도, 행동의 동기부여나 활동의 성과를 포함하지 않는다(Stevenson & Jarillo, 2007; Krueger, 1993; Baum & Locke, 2004; Dwivedi & Weerawardena, 2018).

### 3.2.3. 측정문항 구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행동 속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45개의 초기 측정문항을 생성하였다. 각 하위 구성개념을 요인으로 레이블 지정하려면 각 구성개념마다 적어도 세 개의 측정문항이 있어야 한다(Tabachnick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각 하위개념당 4개 이상으로 문항 수를 결정하고(Harvey et al., 1985; Cortina, 1993) 최종 측정도구에 필요한 문항의 두 배 이상의 측정문항을 생성하였다(Hinkin, 1998). 설문문항의 측정은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3.2.4. 전문가 검토

예비측정문항의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학과 및 창업학 분야 대학교수 5명, 사회적기업 대표자 2명, 소셜벤처 대표자 2명,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1명,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담당자 3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총 13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범주화가 적절한지, 그에 따른 설문문항 구성이 타당한지, 요인과 문항과의 연계성이 적절한지, 중요한 지표의 누락이나 중복 없이 문항이 구성되었는지, 문항의 표현에 일관성이 있는지, 문항의 표현이 명료한지를 확인하고자 설문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설문문항 검토 후 설문문항에 대한 패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의 차이를 검토하여 난해한 표현을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설문문항 간의 의미가 중복되는 문제와 하나의 문항 내에서 복수의 구

성개념이 표현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전문가 패널 중 교수로 구성된 판정위원들과 협의하여 5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표현을 수정하여 최종 다섯 개 영역, 40개의 측정문항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표 1>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사회적가치지향성 9문항; 혁신성 7문항; 진취성 9문항; 위험감수성 7문항; 협력지향성 8문항.

<표 1>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잠정적 측정문항 구성

개념	범주	문항 번호	설문문항
사회적가치지향성	조직 운영과 활동의 기준	item1	사회적 가치는 의사결정의 우선적인 기준이다
		item2	사회적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한다
		item3	조직의 사회적 미션은 조직 운영과 활동의 기준이다
		item4	사회적 미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업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공동체 및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item5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item6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윤리경영 추구	item7	기업윤리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item8	조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item9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노력한다
혁신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item10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item11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개척 및 홍보 마케팅	item12	시장개척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item13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자원동원	item14	자금조달을 포함하여 자원동원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item15
item16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진취성	선제적 대응	item17	사업과 관련된 외부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item18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영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item19	조직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경영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변화에 대한 기회 인식	item20	재무분석과 재정적 모델링을 실시한다
		item21	외부환경 변화를 새로운 사업과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
	역량 강화	item22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item23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item24	성장성 있는 사업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item25	성장성 있는 사업기회를 인지하면 과감하게 도전한다
위험감수성	조직의 지속가능성 우선	item26	사업의 이익 잠재력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우선한다
		item27	사업의 성장 잠재력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우선한다
		item28	사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잠재력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우선한다
		item29	새로운 사업 참여와 자원투입을 신중하게 검토한다
	위험관리를 강조하는 계산된 위험감수	item30	사업 참여에 앞서 수익성을 검토한다
		item31	사업 참여에 앞서 사업 수행능력을 검토한다
		item32	사업 참여에 앞서 예상되는 사업의 위험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를 검토한다

협력지향성	사회적자본 및 네트워크 강화	item33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 및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다
		item34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이다
	자원동원 및 역량 강화	item35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item36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tem37	조직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기회 및 성과 창출	item38	사업기회 창출 및 확장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item39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전달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거버넌스 구축	item40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한다

### 3.3.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자료수집은 한국의 389개 사회적기업 고위 경영자(대표자, 이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5주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설문 대상이 아닌 사회적경제지원기관, 중복 참여기업, 고용인원이 없는 1인 기업, 매출이 없는 기업,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를 제외한 375개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사회적기업을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법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및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으로 해석하였다. 조사대상의 범위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인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은 조사대상인 사회적기업의 경영자(사회적기업가)가 직접 작성하였다. 사회적기업가는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경영활동과 강하게 연결되어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발현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Brouard & Larivet,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문의 대상인 대표자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CEOs, CFOs, CMOs)은 조직의 전략수립과 의사결정,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자로서 기업의 전략적 행동 경향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Zahra & Covin, 1993; O'Shannassy & Leenders, 2016). 설문지는 잠재적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다섯 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의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각 요인에 대한 양적 측정치를 도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의 운영 기간은 1년 미만 48개(12.8%), 1~3년 108개(28.8%), 4~7년 119개(30.4%), 8~10년 62개(16.5%), 11년 이상 38개(10.1%)로 확인되어 초기기업부터 10년 이상 기업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다. 지역분포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이 231개(61.6%), 비수도권이 144개(38.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형태를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비영리목적기업 135개(36.0%), 영리목적기업 240개

(64.0%)로 분석되었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은 예비사회적기업 83개(22.1%), 인증사회적기업 152개(40.5%), (사회적)협동조합 76개(24.5%), 소셜벤처 92개(24.5%), 마을기업 11개(2.9%), 자활기업 7개(1.9%)로 확인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은 중복문항으로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응답기관의 일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응답기관의 일반 현황

구분		빈도	비율(%)	
운영기간	1년 미만	48	12.8	
	1~3년	108	28.8	
	4~5년	67	17.9	
	6~7년	52	13.9	
	8~10년	62	16.5	
	11년 이상	38	10.1	
지역분포	강원도	8	2.1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31	61.6	
	경상도, 대구·부산·울산광역시	106	28.3	
	전라도, 광주광역시	11	2.9	
	제주특별자치도	4	1.1	
	충청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15	4.0	
법적 조직형태	비영리 조직	민법상 법인	41	10.9
		사회적협동조합	74	19.7
		비영리민간단체	6	1.6
		사회복지법인	1	0.3
		기타 법인 및 단체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13	3.5
	영리 조직	상법상 회사	192	51.2
		협동조합	30	8.0
		농(아)업회사법인	13	3.5
		영농(아)조합법인	5	1.3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24)	83	22.1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중복응답 허용, 비율은 n=375 기준)	인증사회적기업 (중복: 20)	152	40.5	
	(사회적)협동조합 (중복: 16)	76	20.3	
	소셜벤처 (중복: 22)	92	24.5	
	마을기업 (중복: 8)	11	2.9	
	자활기업 (중복: 7)	7	1.9	
	2020년 말 기준 최근 1년간 근로자수 증감	(감소) 11명 이상 감소	2	0.5
		(감소) 6명 이상-10명 감소	6	1.6
		(감소) 3명 이상-5명 감소	15	4.0
		(감소) 1명 이상-2명 감소	49	13.1
		(변동 없음) 0명	133	35.5
(증가) 1명 이상-2명 증가		92	24.5	
(증가) 3명 이상-5명 증가		41	10.9	
(증가) 5명 이상-10명 증가		24	6.4	
(증가) 11명 이상 증가		13	3.5	
2020년 말 기준 최근 1년간 취약계층 근로자수 증감		(감소) 11명 이상 감소	1	0.3
	(감소) 6명 이상-10명 감소	4	1.1	
	(감소) 3명 이상-5명 감소	8	2.1	
	(감소) 1명 이상-2명 감소	32	8.5	
	(변동 없음) 0명	224	59.7	
	(증가) 1명 이상-2명 증가	71	18.9	
	(증가) 3명 이상-5명 증가	18	4.8	
	(증가) 5명 이상-10명 증가	10	2.7	
	(증가) 11명 이상 증가	7	1.9	
	2020년 말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액 증감	(감소) 30% 이상 감소	48	12.8
(감소) 20% 이상-30% 미만 감소		18	4.8	
(감소) 10% 이상-20% 미만 감소		26	6.9	
(감소) 0% 이상-10% 미만 감소		29	7.7	
(변동 없음)		83	22.1	
(증가) 0% 이상-10% 미만 증가		58	15.5	
(증가) 10% 이상-20% 미만 증가		42	11.2	
(증가) 20% 이상-30% 미만 증가		19	5.1	
(증가) 30% 이상 증가	52	13.9		

2020년 말 기준 최근 1년간 영업이익 증감	(감소) 30% 이상 감소	53	14.1
	(감소) 20% 이상~30% 미만 감소	18	4.8
	(감소) 10% 이상~20% 미만 감소	27	7.2
	(감소) 0% 이상~10% 미만 감소	42	11.2
	(변동 없음)	102	27.2
	(증가) 0% 이상~10% 미만 증가	71	18.9
	(증가) 10% 이상~20% 미만 증가	28	7.5
	(증가) 20% 이상~30% 미만 증가	4	1.1
	(증가) 30% 이상 증가	30	8.0
Total	375	100	

## IV. 실증분석 결과

### 4.1. 표본의 적합성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설문조사 응답자료의 기술통계치를 검토하여 정규성을 확인하고 다중공선성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 4.1.1. 정규성 확인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항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고,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West et al., 1995). 기술통계치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0.713에서 1.039 사이로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또한 왜도는 -1.512에서 -.319 사이로 분석 기준인 절댓값 2보다 크지 않으며, 첨도의 경우에도 -.472에서 2.724 사이로 분석 기준인 절댓값 7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문항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충족한다.

#### 4.1.2. 다중공선성 검토

이어서 수집된 설문조사 응답자료 각 문항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일부 입력변수와 다른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가 높아 분석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며 다중공선성이 높은 변수(문항)는 자료 분석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분산팽창지수(VIF), 공차한계(Tolerance)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VIF가 10 이상이거나 공차한계가 0.1 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VIF와 공차한계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VIF 값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1번 문항을 종속변수로, 2번 문항부터 40번 문항까지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실시한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VIF 값은 1.769에서 5.206의 범위 내에 존재하여 수집된 자료는 다중공선성이 나타나는 문항이 없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

### 4.2.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법을, 요인회전은 사각회전 방식 중 직접오블리민법을 채택하여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Yong & Pearce, 2013). 이어서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참고하여 요인명을 설정하고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잘 설명되는지 표본의 상관행렬을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값으로 KMO 표본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KMO는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KMO 값이 0.80 이상이면 좋은 수준이며 0.50 이하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된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검정값으로  $p < 0.05$ 이면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 KMO 값은 0.93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유의수준  $p = 0.000$ (근사 카이제곱: 6535.054)으로 나타나 검정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설문자료의 40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확인하였다. KMO 및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어서 요인 추출을 위해 패턴행렬을 이론적 모형과 비교하고 사전에 설정한 검토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구조를 산출하였다. 요인 추출의 검토 기준으로는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0.5를 요인 추출의 컷오프(cut-off) 기준으로 설정하여 최소 하나 이상의 요인에 요인적재값 0.5 이상인 문항을 식별하고, 식별된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0.5 이상 교차 적재된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최종구조에서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 문항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요인으로 추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Ford et al., 1986; Hinkin, 1998). 분석결과 다섯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값은 요인1(0.637-0.940), 요인2(0.732-0.941), 요인3(0.559-0.895), 요인4(0.639-0.790), 요인5(0.598-0.868)로 분석되었다. 요인 추출 시 패턴행렬에서 삭제된 문항은 item5, item6, item7, item8, item9, item14, item15, item16, item17, item20, item23, item24, item29, item30, item31, item32의 16개 문항이고 최종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섯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24개 문항에 대한 공통성(communality)은 0.546-0.856으로 나타나 기준 0.4 이상을 충족하였다.

회전 후 추출된 요인들의 고유값(eigenvalue)은 요인1이 8.460, 요인2는 3.416, 요인3은 6.340, 요인4는 4.958, 요인5는 7.101로 확인되었다. 또한 추출된 요인 다섯 개가 전체 입력변수의 73.320%를 설명하고 있으며 추출된 적재값은 66.408%를 설명하고 있다. <표 3>은 요인별 고유값(회전 제곱합 로딩)과 설명된 총 분산의 비율이다.



<표 3> 요인별 고유값과 설명된 총 분산의 비율

설명된 총 분산							
요인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로딩			고유값
	총계	분산의 %	누적률(%)	총계	분산의%	누적률(%)	
1	10.442	43.510	43.510	10.056	41.901	41.901	8.460
2	2.246	9.359	52.869	1.930	8.042	49.942	3.416
3	2.216	8.860	61.729	1.775	7.397	57.339	6.340
4	1.774	7.394	69.123	1.475	6.146	63.485	4.958
5	1.007	4.197	73.320	.701	2.923	66.408	7.101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요인 1은 ‘협력지향성’, 요인2는 ‘위험감수성’, 요인3은 ‘혁신성’, 요인4는 ‘사회적가치지향성’, 요인5는 ‘진취성’으로 명명하였다. 선정된 다섯 개 요인에 대한 각 요인별 신뢰도 값은 0.839-0.948 사이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내적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Cronbach's Alpha( $\alpha$ ) 신뢰도 계수는 0.7 이상이면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Nunnally, 1978).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n=375)

요인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Cronbach's $\alpha$
협력지향성	item39	.940	.793	8.460	.948
	item38	.940	.818		
	item37	.891	.756		
	item36	.836	.749		
	item34	.705	.670		
	item35	.670	.685		
	item33	.661	.660		
	item40	.637	.601		
위험감수성	item27	.941	.856	3.416	.872
	item26	.811	.692		
	item28	.732	.556		
혁신성	item10	.895	.739	6.340	.883
	item11	.889	.808		
	item12	.617	.579		
	item13	.559	.568		
사회적가치지향성	item3	.790	.600	4.958	.839
	item1	.775	.588		
	item4	.656	.560		
진취성	item18	.868	.695	7.101	.880
	item19	.764	.647		
	item21	.764	.656		
	item25	.656	.546		
	item22	.598	.554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930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Square			6356.054	
	df(p)			276(0.000)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해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24개의 문항에 대한 다섯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어서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고자 한다.

### 4.3. 확인적 요인분석

#### 4.3.1. 일차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다섯 개 하위요인의 요인구조가 지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model fit)는 먼저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할 수 있는  $\chi^2(CMIN)$ 통계량을 확인하고  $\chi^2(CMIN)$ 통계량의 보완적 적합도지수인 RMSEA지수를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절대적합지수인 CMIN/df 비율과 SRMR지수를 검토하고 증분적합지수인 IFI, TLI, CFI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후 개발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잠재변수)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구성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n=375)

	CMIN	df	p	CMIN/df	RMSEA	SRMR	IFI	TLI	CFI
측정 모형	706.789	242	0.000	2.921	0.072	0.0522	0.928	0.917	0.928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CMIN)=706.789$ ,  $p<0.000$ ,  $df=242$ 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CMIN)$ 통계량은 p값이 0.05 이상이면 적합하다. 하지만  $\chi^2(CMIN)$ 통계량의 경우 표본의 크기와 함수관계를 형성하여 표본의 크기에 의한 편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모형이 쉽게 기각되고 모형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조방정식이 개발된 초기에 많이 사용되던  $\chi^2(CMIN)$ 통계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적인 적합도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대표적인 적합도지수로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RMSEA 값이나 CMIN/df 비율이 함께 검토된다(Bollen & Long, 1993). 이때 RMSEA값은 0.08 미만 혹은 더욱 보수적으로 0.05 미만이면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CMIN/df 비율의 경우 최소 5 이하가 되어야 하고 3 이하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Browne & Cudeck, 1992; MacCallum & Austin, 2000; Kline, 2015).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RMSEA값은 0.072로 나타나 0.08보다 작고, CMIN/df 비율도 2.921로 확인되어 적합도가 양호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SRMR지수는 잔차의 평균을 표준화한 값으로 0.08 이하이면 모델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확인결과 SRMR값은 0.0522로 확인되어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추가적으로 IFI, TLI, CFI 값을 검토하였으며 IFI, TLI, CFI 지수는 0.9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Hu & Bentler, 1999; Schumacker & Lomax, 2004). 본 연구모형의 IFI값은 0.928, TLI값은 0.917, CFI값은 0.928로 나타나 모든 값이 적합도지수의 기준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측정도구가 통계적으로 적합한 요인구조임을 확인하고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요인(잠재변수)을 측정하는 다중 측정항목(관측변수)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는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귀계수의 임계비(C.R.), 표준회귀계수(std. λ),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값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의 임계비는 1.96 이상이어야 하고, 표준회귀계수는 구성개념이 측정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값으로 반드시 0.5 이상이어야 하며 0.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Fornell & Larcker, 1981).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Fornell & Larcker, 1981; Netemeyer et al., 2003). 평균분산추출 값은 표준회귀계수와 표준오차분산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AVE = \frac{\sum std.\lambda^2}{\sum std.\lambda^2 + \sum (1 - std.\lambda^2)} \geq .5$$

개념신뢰도는 그 값이 0.7 이상이면 수렴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개념신뢰도도 표준회귀계수와 표준오차분산의 값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R = \frac{(\sum std.\lambda)^2}{(\sum std.\lambda)^2 + \sum (1 - std.\lambda^2)} \geq .7$$

연구모형의 수렴타당도 분석결과, 측정문항의 회귀계수의 임계비는 모두 1.96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각 측정문항의 표준회귀계수는 0.722-0.897로 나타나 모두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 값을 살펴보면 0.672-0.799로 나타나 모두 0.5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개념신뢰도도 0.768-0.930으로 나타나 모두 0.7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연구모형의 수렴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모형의 수렴타당도 분석결과(n=375)

요인	문항	비표준 회귀계수	S.E	C.R.	p	std.λ	AVE	CR
협력 지향성	item40	1.0	-	-	-	.771	.799	.930
	item39	1.023	.055	18.713	***	.869		
	item38	1.063	.055	19.196	***	.886		
	item37	1.039	.057	18.265	***	.853		
	item36	1.006	.054	18.578	***	.864		
	item35	.943	.055	17.031	***	.807		
	item34	1.007	.057	17.517	***	.825		
위험 감수성	item28	1.0	-	-	-	.758	.734	.768
	item27	1.232	.073	16.759	***	.897		
	item26	1.155	.070	16.398	***	.848		
혁신성	item13	1.0	-	-	-	.765	.751	.800
	item12	.985	.063	15.657	***	.787		
	item11	1.059	.060	17.604	***	.876		
	item10	.999	.061	16.328	***	.817		
사회적 가치 지향성	item4	1.0	-	-	-	.747	.695	.784
	item3	.969	.071	13.574	***	.756		
	item2	.948	.070	13.586	***	.757		
	item1	.940	.070	13.489	***	.751		
진취성	item25	1.0	-	-	-	.722	.672	.834
	item22	.899	.065	13.802	***	.746		
	item21	1.033	.068	15.157	***	.821		
	item19	1.092	.076	14.389	***	.778		
	item18	1.030	.069	14.851	***	.804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하나의 요인이 실제로 다른 요인과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측정항목이 다른 요인에는 약하거나 부(-)의 방향으로 연관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요인 각각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ρ)의 제곱값보다 크면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AVE > \rho^2 \rightarrow \frac{\sum std.\lambda^2}{\sum std.\lambda^2 + \sum (1 - std.\lambda^2)} > \rho^2$$

연구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 값이 모든 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컸다. 예를 들어 요인 간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요인1↔요인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인1↔요인2’의 상관계수는 .738이다. 이를 제곱하면 .545가 되고 요인1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751, 요인2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672 이므로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반드시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여 두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요인들도 평균분산추출 값과 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여 평균

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 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의 제곱값, 평균분산추출 값이 포함된 판별타당도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1(n=375)

구분	상관계수( $\rho^2$ )					AVE	CR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1	1					.751	.800
요인2	.738(.545)**	1				.672	.834
요인3	.208(.043)**	.363(.132)**	1			.734	.768
요인4	.510(.260)**	.449(.202)**	.228(.052)**	1		.695	.784
요인5	.586(.343)**	.629(.396)**	.351(.123)**	.555(.308)**	1	.799	.930

\*\*  $p < .01$ ;  $\rho$  = 상관계수;  $\rho^2$  = 상관계수의 제곱  
 Note: 요인1=혁신성; 요인2=진취성; 요인3=위험감수성; 요인4=사회적가치지향성; 요인5=협력지향성.

다음으로 상관계수( $\rho$ )와 표준오차(S.E.)를 이용하여 표준오차에 2를 곱한 값을 상관계수에 더하거나 뺀 범위에 1이 포함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ho \pm 2 \times S.E.) \neq 1$$

상관계수와 표준오차를 이용한 판별타당도 분석에서 모든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연구모형의 각 요인 간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2(n=375)

구분	상관계수	표준오차	2*표준오차	-	+
요인3↔요인5	0.351	0.027	0.054	0.297	0.405
요인1↔요인2	0.738	0.035	0.070	0.668	0.808
요인1↔요인5	0.586	0.030	0.060	0.526	0.646
요인4↔요인5	0.555	0.028	0.056	0.499	0.611
요인3↔요인2	0.363	0.029	0.058	0.305	0.421
요인2↔요인5	0.629	0.032	0.064	0.565	0.693
요인3↔요인1	0.208	0.026	0.052	0.156	0.260
요인1↔요인4	0.510	0.027	0.054	0.456	0.564
요인4↔요인2	0.449	0.027	0.054	0.395	0.503
요인3↔요인4	0.228	0.025	0.050	0.178	0.278

Note: 요인1=혁신성; 요인2=진취성; 요인3=위험감수성; 요인4=사회적가치지향성; 요인5=협력지향성.

이상으로 일차 확인적 요인분석(first-order CFA)을 통해 다섯 개 요인, 24개 측정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일차 확인적 요인 분석(second-order CFA)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구성체계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 4.3.2.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

본 단계에서는 이차 요인인 ‘사회적기업가정신’ 구성개념에 의해 일차 요인이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 이차 요인이 일차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차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이차 요인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관측변수는 없지만,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일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잠재변수)들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먼저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로  $\chi^2(CMIN)$ , CMIN/df, RMSEA, SRMR, IFI, TLI, CFI를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모형의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지수(n=375)

	CMIN	df	$\rho$	CMIN/df	RMSEA	SRMR	IFI	TLI	CFI
측정 모형	740.682	247	0.000	2.999	0.073	0.0610	0.923	0.914	0.923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hi^2(CMIN)=740.682$ ,  $p < 0.000$ ,  $df=247$ 로 나타나 수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함께 검토된 RMSEA값은 0.073으로 0.08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CMIN/df 비율은 2.999로 나타나 3.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RMR값도 0.0610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검토한 IFI값은 0.923, TLI값은 0.914, CFI값은 0.923으로 나타나 적합도지수의 기준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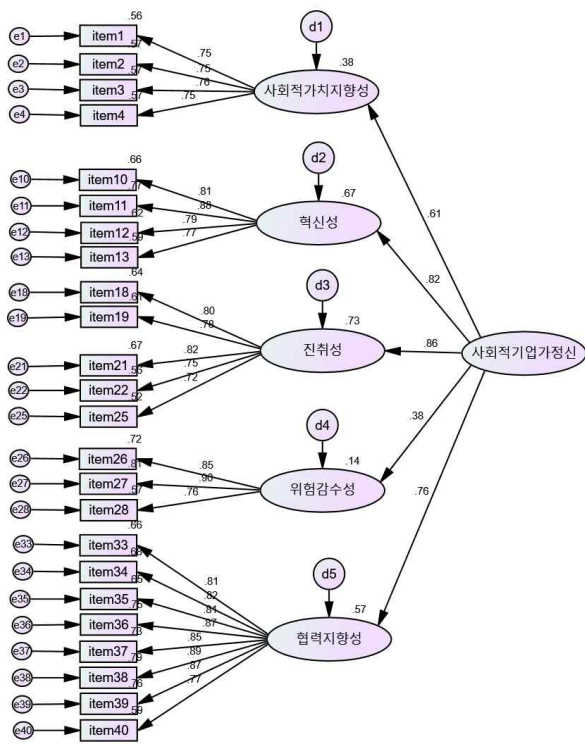
분석결과, 각 일차 요인들의 회귀계수의 임계비(C.R.)는 모두 1.96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회귀계수(std.  $\lambda$ )는 0.378-0.856으로 나타나 이차 요인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일차 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일차 요인들의 표준회귀계수는 0.35 이상이면 유의미하다(배귀희, 2011).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일차 요인 회귀계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일차 요인 회귀계수

경로	std. $\lambda$	S.E.	C.R.	P
사회적가치지향성 ← 사회적기업가정신	.613	-	-	-
혁신성 ← 사회적기업가정신	.819	.168	8.576	***
진취성 ← 사회적기업가정신	.856	.181	8.453	***
위험감수성 ← 사회적기업가정신	.378	.129	5.470	***
협력지향성 ← 사회적기업가정신	.755	.157	8.425	***

\*\*\*  $p < .001$

이상의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다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다차원 모형의 모형적합성과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의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로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모형의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도

<표 11> 사회적기업가정신 하위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하위 구성개념	정의
사회적가치지향성	조직의 사회적 미션에 부합하는 가치창출 활동에 집중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인정과 개발에 기여하려는 행동경향
혁신성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기회와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경향
진취성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를 추구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행동경향
위험감수성	사업 참여와 자원투입에 앞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식별하고 인지된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성 있는 기회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행동경향
협력지향성	사회적자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외부 협력을 통한 가용 자원과 기회를 확장하며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성과의 확산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는 행동경향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하위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예비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측정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 검토를 거쳐 잠정적으로 다섯 개 영역, 40개의 측정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한국의 사회적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89부의 설문지 수집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능한 설문지 375부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추출 시 패턴행렬에서 16개 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섯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이 전체 입력변수의 73.320%를 설명하고 있으며 추출된 적재값은 66.408%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값을 확인하면 유의수준  $p=0.000$ (카이제곱: 419.663)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요인별 신뢰도 값은 0.839-0.948 사이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모형의 이론적 구조를 확립하였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다섯 개 하위요인의 요인구조가 지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RMSEA값은 0.072, 비율은 2.921, SRMR값은 0.0522로 확인되었고, 증분적합지수인 IFI값은 0.928, TLI값은 0.917, CFI값은 0.928로 나타나 모든 값이 적합도지수의 기준을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 분석결과, 각 측정문항의 회귀계수의 임계비는 모두 1.96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표준회귀계수는 0.722-0.897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 값은 0.672-0.799, 개념신뢰도 값도 0.768-0.930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여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결과,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 값이 모든 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요인의 표준오차에 2를 곱한 값을 상관계수에 더

## V. 결론 및 시사점

### 5.1.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5.1.1. 결과 요약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사회적기업 역시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합의가 불충분하여 실무적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측정과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가치지향성 외에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하위 구성요인을 찾으려는 연구와 새롭게 제안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에 대한 모형적합성 검증, 관련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협력지향성을 새롭게 식별한 선행연구의 모형적합성을 검증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롭게 제안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의 객관화와 실무적 활용을 높이고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차원에서 발현되는 기업가적 태도 및 행동경향으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직의 전략적 행동 지향성’으로 정의하고 하위요인을 <표 11>과 같이 정의하였다.

하거나 1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분석에서 모든 값의 범위가 1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연구모형의 각 요인 간에는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어서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RMSEA값은 0.073, 비율은 2.999, SRMR값은 0.0610, IFI값은 0.923, TLI값은 0.914, CFI값은 0.923으로 확인되어 모든 값이 적합도지수의 기준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차 요인들의 회귀계수의 임계비는 1.96 이상, 표준회귀계수는 0.378-0.819로 나타나 이차 요인인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일차 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의 수정된 측정문항을 <표 12>에 재정리하였다.

<표 12>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측정도구

개념	측정문항	번호	EFA		CFA	
			요인 적재량	크른 바호 알파	표준화 계수	개념 신뢰도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는 의사결정의 우선적인 기준이다	item1	.775	.839	.751	.784
	사회적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한다	item2	.639		.757	
	조직의 사회적 미션은 조직 운영과 활동의 기준이다	item3	.790		.756	
	사회적 미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기업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item4	.656		.747	
혁신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item10	.895	.883	.817	.800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item11	.889		.876	
	시장개척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item12	.617		.787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item13	.559		.765	
진취성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경영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item18	.868	.880	.804	.834
	조직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 경영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한다	item19	.764		.778	
	외부환경 변화를 새로운 사업과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	item21	.764		.821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item22	.598		.746	
	성장성 있는 사업기회를 인지하면 과감하게 도전한다	item25	.656		.722	
위험감수성	사업의 이익 잠재력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우선한다	item26	.811	.872	.848	.768
	사업의 성장 잠재력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우선한다	item27	.941		.897	
	사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잠재력보다 사업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을 우선한다	item28	.732		.758	

협력 지향성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구축 및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다	item33	.661	.948	.814	.930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이다	item34	.705		.825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	item35	.670		.807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item36	.836		.864	
	조직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item37	.891		.853	
	사업기회 창출 및 확장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item38	.940		.886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및 전달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item39	.940		.869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과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한다	item40	.637		.771	

본 연구는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협력지향성이 포함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다차원 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고 연구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연구에서 협력지향성은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및 역량강화, 기회 및 성과 창출, 사회적 자본 및 네트워크 강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행태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지향성이 사회적기업의 친사회적 동기를 구체화하고 기업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행동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 5.1.2. 연구의 시사점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안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측정도구 개발과 실증을 통해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양적연구를 수행하여 새롭게 제안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이론적 모형을 객관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의 이론적 설명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련 후속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확장의 근거와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기업가적 행동 특성은 전통적인 영리기업과는 구별되며 이를 반영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는 구별된다는 선행연구를 공고히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추가된 협력지향성을 측정하는 일반화된 측정도구가 알려져 있지 않아 측정도구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일련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자들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에 있어서 연구에서 활용된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가치지향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협력지향성 척



도가 조직차원의 행동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어왔고,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향상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진단하여 이들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발현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으로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과 구별되는 사회적기업의 고유한 기업가적 행동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는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새로운 사회적기업가정신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새롭게 개발하여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과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되어 검증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는 실무적으로 조직차원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기업가정신 척도는 기업가적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 향상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연구의 여러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같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역사적 배경, 사회·경제적 환경, 법률 제도, 지역 및 국가, 시대 변화, 연구자의 연구방향 등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목적,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주체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사회적기업을 법적인 형태가 아닌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예비)인증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을 포괄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기업가정신 발현에는 법적인 조직형태, 사회경제기업 분류 내에서의 조직유형, 업종,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구분, 성장단계 등 사회적기업의 세부적인 구분에 따라 이들에게 발현되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유형별, 법적 조직형태별, 영리 및 비영리를 구분하여 표본의 특성별로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구분에 따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특성을 검토하여 차이를 규명하

기에는 수집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기업가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 형태나 유형, 업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검토하고 그 차이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다수의 사회적기업가정신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횡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 및 횡단적 연구의 제약으로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측정도구의 예측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각 요인들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협력지향성이 추가된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모형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새롭게 개발된 만큼 후속연구를 통해 모형의 이론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협력지향성을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식별하고 척도를 개발하여 실증하였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기업가적 협력행동 경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미션, 업종, 조직유형, 조직의 크기, 성장단계, 경영진의 특성, 협력의 형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발현되는 협력지향성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이들 사회적기업에서 발현되는 협력지향성의 특성과 차이를 규명하고 이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

- 배귀희(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조한준(2021). *사회적기업가정신 다차원 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사회적기업의 협력지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조한준·성창수(2023). 사회적기업가정신 다차원 모형 및 프레임워크: 사회적기업의 협력지향성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2), 1-20.
- 최조순(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 Alter, K.(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12(1), 1-124.
- Alvord, S. H., Brown, L. D., & Letts, C. W.(2004). Social

- entrepreneurship and societal transformation: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0(3), 260-282.
- Austin, J., Stevenson, H., & Wei-Skillern, J.(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 1-22.
- Bae, K. H.(2011). A Study on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5(2), 199-227.
- Baum, J. R., & Locke, E. A.(2004). The relationship of entrepreneurial traits, skill, and motivation to subsequent venture growt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4), 587.
- Bloom, P. N., & Chatterji, A. K.(2009). Scaling social entrepreneurial impact.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1(3), 114-133.
- Bollen, K. A., & Long, J. S.(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Vol. 154)*. Sage publications.
- Brouard, F., & Larivet, S.(2010). *Essay of clarifications and definitions of the related concepts of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 and social entrepreneurship*. In *Handbook of research on social entrepreneurship*. Edward Elgar Publishing.
- Browne, M. W., & Cudeck, R.(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o, H. J.(2021). *Developm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Multidimensional Model and Measurement Tool: Focusing on the Cooperative Orientation of Social Enterpris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 Cho, H. J., & Sung, C. S.(2023). Development of Social Entrepreneurship Multidimensional Model and Framework: Focusing on the Cooperation Orientation of Social Enterpris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8(2), 1-20.
- Choi, J. S.(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 Clark, L. A., & Watson, D.(2019). Constructing validity: New developments in creating objective measuring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31(12), 1412.
- Cochran, P. L.(2007). The evolu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horizons*, 50(6), 449-454.
- Cortina, J. M.(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 examination of theory and applic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1), 98.
- Dees, J. G.(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Kansas City, MO and Palo Alto, CA: The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 Defourny, J.(2014).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a European Research Trajectory. In J. Defourny, L. Hulgard, ... V. Pestoff (Eds.), *Social Enterprise and the Third Sector(pp. 17-41)*. New York: Routledge.
- Drayton, W.(2002). The citizen sector: Becoming as entrepreneurial and competitive as busines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4(3), 120-132.
- Dwivedi, A., & Weerawardena, J.(2018). Conceptualizing and operationalizing the social entrepreneurship construc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86, 32-40.
- Ford, J. K., MacCallum, R. C., & Tait, M.(1986). *The applic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applied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39(2), 291-314.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eorge, B. A., & Marino, L.(2011). The epistemology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ceptual formation, modeling, and operationaliz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5), 989-1024.
- Harvey, R. J., Billings, R. S., & Nilan, K. J.(198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Good news and bad new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0(3), 461.
- Hervieux, C., Gedajlovic, E., & Turcotte, M. F. B.(2010). The legitimiza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nterprising Communities: people and places in the global economy*.
- Hinkin, T. R.(1995). A review of scale development practices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21(5), 967-988.
- Hinkin, T. R.(1998). A brief tutorial on the development of measures for use in survey questionnair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104-121.
- Hodgetts, R. M., & Kuratko, D. F.(2004).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and Practice (6th Edition)*. South-Western College Pub.
- Hu, L. T.,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line, R. B.(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1.
- Kuratko, D. F.(2005).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5), 577-597.
- Laville, J. L., & Nyssens, M.(2001). *The Social Enterprise: Towards a Theoretical Socio-Economic Approach*,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pp. 324-34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aw, K. S., Wong, C. S., & Mobley, W. M.(1998). Toward a taxonomy of multidimensional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4), 741-755.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urtz, K., & Kreutzer, K.(2017).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ocial venture creat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 The pivotal role of social risk taking and collabor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6(1), 92-115.
- MacCallum, R. C., & Austin, J. T.(2000).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sycholog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201-226.
- Mair, J., & Marti, I.(2006).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 source of explanation, prediction, and deligh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36-44.
- Minkoff, D. C.(2002). The emergence of hybrid organizational forms: Combining identity-based service provision and political ac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1(3), 377-401.
- Montgomery, A. W., Dacin, P. A., & Dacin, M. T.(2012). Collective social entrepreneurship: Collaboratively shaping social good.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1(3), 375-388.
- Morris, M. H., Webb, J. W., & Franklin, R. J.(2011). Understanding the manifestation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the nonprofit contex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5(5), 947-971.
- Netemeyer, R. G., Bearden, W. O., & Sharma, S.(2003). *Scaling procedures: Issues and applica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Nunnally, J. C.(1978).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97-146.
- O'Shannassy, T., & Leenders, M. A.(2016). *Avoiding the "too comfortable in the saddle" syndrome: Obtaining high performance from the chairperson, CEO and inside directo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2), 5972-5982.
- Peredo, A. M., & McLean, M.(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56-65.
- Perrini, F., & Vurro, C.(2006). *Social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social change across theory and practice*. In *Social entrepreneurship* (pp. 57-85). London: Palgrave Macmillan.
- Sagawa, S., & Segal, E.(2000). Common interest, common good: Creating value through business and social sector partnership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2(2), 105-122.
- Schumacker, R. E., & Lomax, R. G.(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Jersey: psychology press.
- Shaw, E., & Carter, S.(2007). Social entrepreneurship: Theoretical antecedents and empirical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es and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4(3), 418-434.
- Short, J. C., Moss, T. W., & Lumpkin, G. T.(2009). Research in social entrepreneurship: Past contributions and future opportunitie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3(2), 161-194.
- Spear, R.(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different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5-6), 399-410.
- Stevenson, H. H., & Jarillo, J. C.(2007).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pp. 155-170). Berlin, Heidelberg: Springer.
- Sullivan Mort, G., Weerawardena, J., & Carnegie, K.(2003). Social entrepreneurship: Towards conceptual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1), 76-88.
- Tabachnick, B. G., Fidell, L. S., & Ullman, J. B.(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Vol. 5, pp. 481-498). Boston, MA: Pearson.
- Weerawardena, J., & Mort, G. S.(2006).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21-35.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publications.
- Wetzels, M., Odekerken-Schröder, G., & Van Oppen, C.(2009). Using PLS path modeling for assessing hierarchical construct models: Guidelines and empirical illustration. *MIS quarterly*, 33(1), 177-195.
- Yong, A. G., & Pearce, S.(2013). *A beginner's guide to factor analysis: Focusing o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utorials in quantitative methods for psychology, 9(2), 79-94.
- Young, H. P.(2001). *Individual Strategy and Social Structure: An Evolutionary Theory of Institu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ahra, S. A., & Covin, J. G.(1993). *Business strategy, technology policy and firm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6), 451-478.
- Zeyen, A., Beckmann, M., Mueller, S., Dees, J. G., Khanin, D., Krueger, N., Murphy, P. J., Santos, F., Scarlata, M., Walske, J., & Zacharakis, A.(2013). Social entrepreneurship and broader theories: Shedding new light on the 'Bigger Picture'. *Journal of Social Entrepreneurship*, 4(1), 88-107.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Tools: From an Organizational-Level Behavioral Perspective\*

Cho, Han Jun\*\*

## Abstract

In order to generalize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odel with cooperation orientation an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model, this study developed a measurement tool and tested it with 389 executives of social enterpris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ool, preliminary measurement items were formed through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a questionnaire was tentatively composed of 40 measurement items in five areas through an expert panel review of the measurement items. A total of 38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Korean social enterprise managers, and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375 questionnaires that could be analyzed. Five factors for 24 items were deriv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rough a series of analysis processes including primary and secondar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odel fit of the newly constructed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model was confirmed,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s were verifie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del fit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odel(social value orientation;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risk-taking; cooperation orientation) is verified, thereby improving the theoretical explanatory power of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the basis and basis for theoretical expansion of follow-up research. The study proved the possibility of generalizing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odel with added cooperation orient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measurement tool used in this study was widely used as a tool to measure social entrepreneurship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operation orientation is manifested in corporate decision-making and activity behaviors for resource mobilization and capacity building, opportunity and performance creation, social capital and network reinforcement, and governanc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Key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hip, Cooperation orientation, Measurement Tools, Scale*

\* This paper was summarized and modified from part of the PhD thesis of the first author(Cho, 2021).

\*\* First Author, Adjunct Profess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 Dongguk University, South Korea, dynamichj@naver.com